▶▶ 매일 INDEX

12면
김병종미술관 에듀센터 '콩' 개관

전주매일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음 10월 23일) 제33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세 수입 부족 보통교부세 14% ↓

17개 시도 57조1000억원… 예정보다 9조원 적어

지방세, 본예산보다 4% ↓… "재정 운영 차질 발생"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4% 적게 걷혔다.

따라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원보다 13.7%(9조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000억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0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전남(-1조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9,000억원)보다 12조8,000억원(18.3%) 감소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줄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4.3%) 부족하다.

작년(116조5,000억원)보다는 7조9,000억원(6.7%)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도가 1조9,000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원), 대구(-4,000억원) 등이 그다음이었다.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449억원이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000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000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4일 전주서곡초등학교 앞에서 박주용 부교육감과 이만수 전주교육장, 김숙 교육국장,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과, 전주서곡초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의 인권, 서로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캠페인이 진행됐다. 전북도교육청은 8일까지 '전북교육인권주간'으로 운영한다.

'모두의 인권, 서로 존중하는 우리'

도교육청, 8일까지 '전북교육인권주간' 운영
다큐영화 상영·교육공동체 나눔의 날 진행

전북도교육청은 4~8일을 '전북교육인권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8일 제정·시행된 '전라북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보호자까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4일 '모두의 인권, 서로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전주서곡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주용 부교육감과 이만수 전주교육장, 김숙 교육국장,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과, 전주서곡초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핫팩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주간' 캠페인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주간'을 맞아 5일 인권 다큐영화 '니얼굴(Please Make Me Look Pretty)' 상영, 7일 인권 교육학습공동체 나눔의 날을 운영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인권주간 행사를 통해 모두를 위한 인권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임 국립전주박물관장 임명… 공석 11개월 만에

박경도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박경도(51·사진)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이 신임 국립전주박물관장에 임명됐다. 박물관장 공석 11개월여만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4일 박경도 신임 관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임기는 2년이다.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조직 운영과 문화재 기증 및 기탁, 국가 귀속품 관리, 문화재와 학술자료의 연구, 조사, 발굴, 보관,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전시 교육,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지원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그 중에서도 국립전주박물관장은 전북의 문화예술계를 이끌고 관리하는 자리로 인식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매우 관심이 높은 자리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1월 홍진근 전 국립전주박물관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약 11개월째 박물관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한편, 박 신임 관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고고인류학과와 경북대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그는 부여박물관과 진주박물관, 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지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훈 기자